

## 市 '전문예술극장' 추진... 지역민 기대·우려 '교차'

1천석 이상 대형 공연장 '전문 오페라·뮤지컬 전문장르 소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환영' 경제 효과·타당성·활용도 '의문' '창작기능·운영방향 설정 중요'

광주시가 오페라·뮤지컬 등 전문 장르의 문화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전문예술극장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민 사이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광주에 전문예술극장이 세워지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문화산업 분야 수요가 적은 지역 특성상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활성화가 더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의 공연 시설은 대부분 다목적용으로, 1000석 이상의 전문공연장은 단 한 곳도 없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1000여석 규모의 대극장이 있지만 객석과 무대 구분이 없는 시설이어서 전문 장르 공연을 수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민들은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공연이나 대규모 뮤지컬·오페라에서 소외되는 등 문화향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문예술극장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4월 전문가 16명이 참여한 '전문예술극장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까지 두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예술극장의 장르와 건립 규모, 공간 콘텐츠,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광주시는 연말까지 종합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내년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예술극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직장인 박소진(33)씨는 "광주에는 전문 장르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쉽다. 뮤지컬 등 전문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니 불편한 점이 많다"며 "광주에 전문예술극장이 생긴다면 타 지역에서도 광주를 찾을 것이다. 몇 년 후에는 복합쇼핑몰도 생기니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민들이 예술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공간'이 없어 소비하지 못하는 것이다"고 전문예술극장 건립을 반겼다.

장성에 거주하는 김승후(19)씨도 "장성에는 아이맥스관 등 특별 상영관이 없어 보고 싶은 영화가 생기면 버스를 타고 광주 유스퀘어로 온다. 광주에서 연극 등 공연을 본 기억도 많다"며 "전문예술극장 등 문화예술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전남지역 사람들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광주를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송한글(33)씨는 "수요가 있어야 수천억의 예산을 들여 대규모 전문공연장을 짓는 의미가 있는데 광주·전남지역에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이 든다. 타당성을 확실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고개를 저었다.

구모(54)씨도 "예술인이나 예술에 관심이 많은 마니아층이 아닌 이상 일반 시민들이 전문 공연을 보는 일은 많아야 일년에 한두 번 정도일 것이다. 직업상 서울에 갈 일이 많고 뮤지컬 등 공연을 좋아해 종종 극장을 찾지만, 주변 사람들을 보면 공연예술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광주·전남의 경우 인구수도 많지 않아 전문공연장이 지어져도 제대로 활용될지 의문이다. 광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예술 시설이 생기면 좋겠지만 상징적 의미 외에 경제적 효과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공연시설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2면에 계속 나다운 기자



대한적십자사, 진도 수해 복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협의회 봉사원들이 17일 진도 의신면 도목리 침수 주택과 마을회관에서 냉장고 등 가전 제품 및 가재도구 정리, 토사 제거 등 복구 작업을 펼치고 있다. 나건호 기자

## '대한민국 미술축제' 광주·부산 비엔날레 통합권 판매

문체부·코레일 협업... 30% 할인 철도승차권 할인·미술관 무료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미술축제'가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업해 통합권을 판매한다.

인터파크에서 판매되는 광주·부산 비엔날레 통합권은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 입장권으로, 두 비엔날레 기간에 전국 48개 국공립 및 사립 주요 미술관 무료입장 또는 할인 혜택까지 같이 누릴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승차권과 광주비엔날레 입장권을 연계한 특별 철도 관광상품을 8월7일부터 판매한다. 비엔날레 입장권은 3000원 할인해 1만5000원에 판매되고, 철도 승차권은 시간대별로 5~

40% 할인된다.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되며, '판소리-모두의 울림(Pansori-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열린다. 총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31개의 특별관(파빌리온)이 열린다. '공간'이라는 주제를 '소리'라는 형식으로 구현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판소리를 매개로 영화를 보듯 감상하는 전시를 준비 중이다.

한편 올해부터 추진하는 '대한민국 미술축제'는 광주 비엔날레, 부산 비엔날레, 서울 아트위크,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등 주요 미술행사를 연계하고, 전국 미술관이 참여하는 우리나라 대표 미술축제 브랜드다.

축제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서는 아트 페어, 비엔날레, 기획전시 등 다양한 미술

행사가 개최된다. 문체부, 서울특별시, 광주시, 부산시는 물론 한국화랑협회, 프리즈 서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단순 미술 행사 지원에서 나아가 미술향유 및 미술특화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과 방한 관광객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꾸며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미술축제'를 주관하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관계자는 "세계적인 미술행사가 집중되는 시기에 관람객들이 더 편리하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높이고 있다"며 "K-아트를 대표적인 국가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올 가을 '대한민국 미술축제' 기간 국내외 관광의 중심에 미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 단 하나의 진짜

PERON 엑스페론

[ Yes, it's true balanced ]

# 밸런스 라인